



바닷도의 노래
그후 20년



바닷도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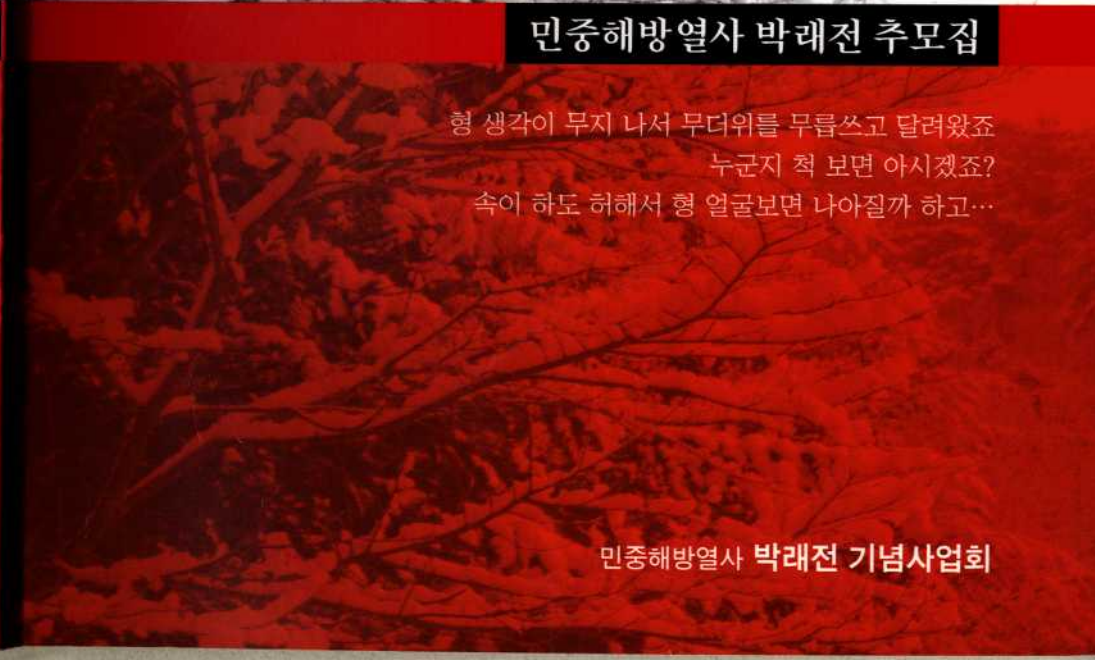
그후 20년

민중해방열사 박래전 추모집

형 생각이 무지 나서 무더위를 무릅쓰고 달려왔죠
누군지 척 보면 아시겠죠?
속이 하도 허해서 형 얼굴보면 나아질까 하고...



민중해방열사 박래전 기념사업회



민중해방열사 박래전 기념사업회



민중해방열사 故 박래진

- 1963년 4월 경기도 화성 출생
- 1982년 3월 숭실대학교 국문학과 입학
- 1987년 12월 민중후보 선거대책위 선전국장 역임
- 1988년 3월 제20대 인문대 학생회장 당선
- 1988년 6월 4일 숭실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광주는 살아있다. 청년학도여 역사가 부른다. 군사파쇼 타도하자' 라고 외친 후 분신
- 6월 6일 전신 80% 3도 화상으로 운명
- 6월 13일 민중해방열사 박래진 민주국민장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

바닷노래
그후 20년

민중해방열사 박래전 기념사업회

차 례

여는 글	006
제1부 어머니 용서하세요	015
분신상황일지	016
유서	021
제2부 반도의 노래	029
패랭이의 노래	
패랭이의 노래	032
진달래	033
기차	034
시인에게	036
폐인에게	038
그대에게	039
강 · 1	041
강 · 2	042
강 · 3	043
강 · 4	044
폐인의 오후	045
비	046
바람일 수는 없다	047
冬花	048
당신의 푸른 옷	
불꺼진 창	050
아버지의 고독	052
'손씨	054
질통	055

당신의 푸른 옷	056
모순 • 1	057
어머니 말씀	059
밤이 새도록 불을 켜두는 이유	060
다시 그대들이여	062
친구에게	063
자유에게	064
달아! 내가 보고파서	065
그날, 그날이 오기까지 엄니	067

흙은 말한다

농사꾼의 노래	072
흙으로 돌아와서	073
고향	074
농약	077
벼	079
가을 • 1	080
가을 • 2	082
새 • 1	083
새 • 2	084
야경	085
우물을 파자	087
흙은 말한다	088
叛奴의 노래	090

반도의 노래

빼앗긴 땅에서 부르는 노래	094
지금은 봄이지만	095

잘못 들은 이야기	097
연옥의 하늘은	098
푸른 깃발 날리며 돌아올 그대들을 위하여	099
그대, 돌아오라!	100
슬프지 않은 그날이 오면	102
다시 우리들은	103
돌아오지 않는 후배에게	104
이제 아무도	106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	108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109
반도의 노래	110

민주의 녀이여! 부활하라!

민주의 녀이여! 부활하라! 죽음의 언덕을 넘어!	112
부활하라, 오월이여! 해방의 불꽃으로!	116

발문을 대신하여

래전이 뉘의 시를 읽고	146
밤이 모질어도 꽃은 피워야한다!	146
내전이 형, 미안,	150

제3부 그리운 래전이 뉘

방명록	206
-----	-----

제4부 겨울꽃과 더불어

초대 동화	214
초대 시	222

래전이兄의 20주기를 맞으며...

2008년 새해 벽두가 밝았지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은 밝아 보이기보다는 어두운 과거로의 회기로만 느껴지니 안타깝다.

1987년 말에도 대선이 있었고, 1988년 4월에도 총선이 있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2008년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여대야소'의 국회를 구성한 이후 우리 사회의 정치적, 이념적 지향은 중도 좌파에서 중도 우파로의 변화가 예상되어 지지만 그 본질에서는 '신자유주의로의 정권교체' 이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퇴보로 느껴지는 것은 '대운하'의 기치를 든 토건공화국이 불려올 엄청난 재앙이 불을 보듯 뻔한 현실 속에서 공공부문은 민영화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으며, 초국적 자본투기에 의해서 유가는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재벌을 비롯한 '특권층 살리기'를 '경제 살리기'로 위장하여 민생을 파탄내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다.

그러나 2008년 5월부터 시작된 '촛불의 물결'은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독재성에 항거하여 민주주의와 정의가 되어 물 밀 듯 밀려오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로 시작된 촛불의 물결은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정책, 교육정책 등 모든 정책의 반대로 표출되고 있으며, 급기야 '독재타도'의 외침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 군중들 속에서 되살아나고 있는 박래전 열사의 모습을 본다.

민주주의의 화신이 되어 살아나고 있는 무수한 열사들의 부활을 전국의 거리에서 본다.

‘쓰러지지 말자
이미 거역의 깃발을 들었으니
다시는
다시는 쓰러지지 말자

연륜이 모질어
너의 날개 접어 두었으나
부러지지 않는 것
꺾일 수 없는 것
보아라, 때꿀산 너머에
아침이 오고 있지 않느냐'

-박래전 열사의 시 '叛奴의 노래' 중에서-

2008년 6월은 박래전 열사의 시대적 부활과 더불어 시집인 "반도의 노래"를 재정리하고 이에 대한 시평과 후배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담아 "반도의 노래 그 후 20년"을 출간하기로 하였다.

20년 세월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박래전 열사를 생각하고, 기념사업회를 걱정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음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낀다. 계속적인 애정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기를 바라며, 그 간 이 책이 나오기까지 고생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민중해방열사 故 박래전 기념사업회 회장 이승상

박래전 열사의 20주기

2008년 6월은 지금껏 끌어 오던 미국산 쇠고기수입협상을 둘러싸고 전국이 뒤끓고 있습니다. 통치자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정권을 유지해 가겠다는 발상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이는 저지되어야 하고 국민에 대하여 깊은 사죄와 더불어 시정되어야 마땅한 일일 터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오만과 독선은 끝간데 없이 반동화하고 사대화하여 정권을 무슨 전리품으로 착각하고 온갖 협잡꾼과 모리배들을 도처에 배치하여 국민을 사갈시키고, 모략 음해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시작된 촛불시위를 불온 혹은 배후 조종 운운하며 조사를 착수하는 치졸한 작태는 10여년 이전이나 있던 풍경이라 할만한 일입니다. 집권 3개월여 만에 지지율 20%대로 하락하자 스스로 반성할 기미는 없고 홍보부족이라며 법석을 노는 판이니 이 정부를 믿고 따라가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1987년, 지금으로부터 21년전 4.19이후 30여년의 암흑의 시대를 뚫고 새로운 시대의 창을 열었으나 두터운 반동의 벽에 부딪쳐 새로운 공간 정국을 맞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단절 없이는 이땅에 진정한 민주사회에 이룩될 수 없음을 통찰한 동지는 결연히 민주제단에 몸을 던졌습니다.

“민주주의하는 나무는 인간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오늘에 와서 어찌 그리도 간곡한 말로 들리는지요. 우리는 그간 얼마나 많은 피를 쏟아 부었습니까?

우리는 그의 시와 유서를 통해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가족과 동지들의 말을 통해 그가 얼마나 이 땅의 민중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삶을 이어오신 부모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주변의 동지와 민중에 대한 사랑으로 심화되어 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지가 사랑한 그리고 모든 판단의 기준일 수 밖에 없는 민중의 입장에서 동지는 분단극복과 민주주의를 향한 당면의 과제를 외치며 산화하였습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인간해방의 관점에서 통일 단결해서 싸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은 지금 예측자본정권인 이명박정권의 집권으로 귀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혁세력은 아직 4분 5열되어 있습니다. 어린 중고생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어나오는데도 우리는 이땅의 민중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으로 당당하게 앞장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지가 요구했던 민중적 관점에서 통일된 모습으로 싸우지 못한 그 결과에 참담해 하며 부끄러워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동지의 사랑이 동지의 소시민적 이기적 개인을 버리는 투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긴 시간이 흘렀지만 동지의 목소리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생생한 목소리로 질책하고 있습니다.

박래전동지, 우리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동지여 더욱 노력하고 더욱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저세상에서나마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깊게 믿고 있습니다.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의장 박중기

스물여섯 살 청년으로 남아 있는 그를 만나는 일

스무날 전쯤, 한 청년의 생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없는 그 청년은 자신의 스물여섯 나이 생일날에 유서를 적었습니다. 모두 5통의 유서. 생일날 세상에 남기는 유서를 적었던 그 청년의 생일을 20년 동안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어서 그날은 꼭 묘소를 다녀오려고 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일정도 빼고 대중교통으로 겨우 1시간 반이면 넉넉히 도착할 그곳에 다녀올 생각이었지요.

그렇지만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회의와 일들이 그리로 향하는 발을 붙잡았습니다. 그런 일정들이 갑자기 들어서고 시국은 급하게 돌아가므로 어쩔 수 없이 포기했지요. 추모일에 가면 되지, 무척이나 아쉬웠던 날 술 한 잔 하고 싶어도 술잔 기울일 친구도 없었지요. 모두 바쁘니까. 지금은 이 나라, 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사적 시기일 것입니다. 아마도 스물여섯 팔팔한 나이에 자신의 몸에 불을 살랐던 그가 바라던 그 세상을 향해 가는 시기인 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죽어 영혼이 있다면 그런 사정을 이해하겠지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나이가 정지되는구나, 많은 세월이 흘러도 사람의 나이는 그 순간으로 정지됩니다. 전태일 열사가 1970년 스물세 살의 나이로 죽었고, 그렇다면 그는 60대 초로 접어들었을 텐데, 여전히 그는 스물세 살의 청년으로 기억됩니다. 것처럼 20년 전의 그도 스물여섯 청년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보다 두 살 적은 그도 40대 후반의 나이일 것이고, 그의 머리에도 흰머리가 꽤나 많이 섞였을 테고, 그의 분노와 이상과 정열도 많이 순화되었을 텐데, 여전히 사진 속의 그는 젊은 날의 모습입니다.

그가 살아 20년 후의 오늘을 맞았다면, 여전히 운동가로 살아갈까요?

여전히 가끔씩 시를 쓰면서 시더러 침을 뱉으라고 할까요? 자신의 비겁과 안일을 질타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대중의 진출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진보운동세력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뒤로 물러설 줄 모르는 고집으로 자신의 자리를 외롭게 지키는 운동가일까요? 스물여섯 청년의 모습, 그리고 그가 살았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은 또렷이 기억나는데 그가 살았을 날들에 대해서는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한때 나는 그의 뒤통까지 운동하면 살겠다고 다짐하고는 했습니다. 그가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의 분열과 탄탄하지 못한 진보운동진영이 덩달아 분열하였을 때, 그리고 시류에 휩쓸려 운동의 방향을 잡지 못한 채 갈팡질팡할 때, 그때 그는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자신의 몸에 불을 살랐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신의 뒤통을 갖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대신해줄 수 없는 삶의 무게와 뒤통이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의 사람을 대신할 수 있고, 그의 뒤통까지 살까요? 나 하나의 목숨을 부지하고 숨고 르기에도 버거운 나날인데...

참으로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이 운동의 고단함에 지쳐 그만 돌아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쉬고도 싶고, 아니 그만 놓아버리고 싶고... 그러다 목숨마저 놓아버린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것도 같았던 그런 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면서, 죽는 것도 어렵지만 살아서 그 고단함을 이기며 살아내는 것도 힘들다는 점을 깨달아 갔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민중들은 제 각기 힘든 사정을 안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점, 때로는 바람보다 먼저 누워 이기적 욕망에 온몸을 맡겨버리는 민중들이라고 생각하던 이들이 오늘 들고 일어나 정부의 압력에 저항하는 힘을 분출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나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스물여섯 살 청년이 살고 싶었던 날들을 살아가면서 운동 속에서,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인권운동의 길을 가고 있으므로 나는 행복합니다. 어느 날 그의 곁에 누울 수 있을 때, 온몸 불살라 젊은 나이에 죽어야 했던 너보다는 행복했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는데, 그것

이 참 어렵습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던 시절들, 활동은 열심히 하면서도 운동의 근본에서는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서 초조했던 나날들, 같이 호흡하고, 같이 미래를 구상해야 할 민중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다른 사이클의 생활 속에 놓여 있다고 느낄 때, 그럴 때 고백하건대 나는 그의 죽음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마지막 처참하게 뭉개진 몸뚱이, 그리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끊임없이 외치고자 했던 그 열망을 떠올렸습니다. 그만이 아니라 앞서간 많은 이들, 그들 중에는 때로는 나와 같이 술잔을 기울이며 운동을 나누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친구처럼, 동생처럼, 동지처럼 그들과 나누었던 대화와 생활, 그리고 그 속에서 생겼던 관계들, 그들은 먼저 저 세상 사람이 되어 떠난 자리에 저는 서 있다는 것, 그들과 했던 약속들을 저버릴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저는 괴로우면서도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죽은 자들과의 약속은 어떻게든 변경할 수 없으므로, 그것은 일방적인 약속 파기이므로...

많은 날을 돌아와 이제 다시 그와 마주합니다. 부모님들은 80 전후의 나이에도 고단하기 이를 데 없는 농사일을 계속 하고 있고, 세월의 흐름만큼이나 같이 살던 사람들은 늙고 세상은 변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외쳤던 절절한 호소들은 이제는 낡은 주장들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의 민주주의, 민중이 주인 되는 새로운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 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몫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그런 상을 사람들에게 제시하지 못하는 거겠지요.

이명박 대통령에 당선되고, 총선에서마저 한나라당과 보수정당들의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던 바로 몇 달 전만 해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지부동으로 부동산 투기와 펀드와 증권이란 경제적 욕망에만 관심을 보이던 이들이 일어서고 있습니다. 철없는 아이들로만 보이던 10대들이 뛰쳐나와 밝힌 촛불을 20대, 30대, 40대가 이어받고 있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생한 언어로 대통령과 정부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성과는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민중들의 의식과 몸에 고스란히 기억되었고, 그들의 욕망

이 헛것이였음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일어나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매일 밤, 거리를 촛불과 행진으로 뒤덮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단순히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대한 항의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렵게 일구어온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준을 십년, 20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저항이고, 국민주권을 무시한 정치세력에 대한 반란입니다. 그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가장 역동적으로 흐름을 만들고, 여론을 만들고, 거리를 살아 있는 민주주의 실현의 장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호흡은 가빠지고, 민중들의 열정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20년 전 거리에서 동지로 뜨겁게 만나 포옹했던 그와 함께 민중들의 흐름 속에 같이 뛰어들어 구호를 외치고 싶습니다. 죽은 이가 늙지 않고 여전히 젊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은 단지 그가 죽어 한 사람의 역사가 정지되었기만은 아닙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고집스럽게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살아 있는 사람들이 괴로워 외면하다가도 끝내 해방의 길에서 한때 잊고자 했던 그들을 호명하고, 그의 구호와 뜻과 정신과 노래를 되새기며 재해석해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짧지 않은 세월, 먼 길을 돌아와 다시 그와 마주합니다. 그가 찾았던 민중, 그가 목숨처럼 아꼈던 민중, 그가 기꺼이 목숨마저 던질 수 있었던 그 민중과 마주합니다. 인권은 바로 그들의 해방을 향한 권리의 다른 이름이었고 역사였으며 도덕이었습니다.

오늘 20년 전의 동생을 만나지만, 오늘 나는 새로운 모습의, 조금은 낯선 동생을 만납니다. 그러기에 그는 다른 열사들처럼 늙지도 않고 여전히 스물여섯 청년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제 동생을 기억하고, 제 동생의 뜻을 잇기 위해 애써주신 숭실대 동문들, 그리고 후배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가협이 다른 가족들을 비롯해 제 동생, 박래전을 기억해준 우리 사회 진보운동의 길을 걸어왔고,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선후배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박래전 열사 친형·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박래곤

제1부
어머니 용서하세요

분신상황일지

유서1

유서2

유서3

분신상황일지

■ 1988년 6월 4일

- 16:30 경 1988년 6월 4일 16:30분 경
송실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광주는 살아있다.”, “청년학도여 역사가 부른다. 군사파쇼 타도하자”라고 외친 후 온몸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인 후 분신.
- 16:50 영등포 한강 성심병원 도착(전신 80% 3도 화상), 기도 확장 치료 중
- 22:00 서울대 · 연세대 · 단국대 · 경희대(서울지역 치과대학 연합)
래전; 계속 입에 물을 묻히고 자기손으로 가재로 입을 닫고 있음.
- 22:04 주먹을 쥔
- 22:05 래전; “이제 죽는 것은 내가 마지막이어야 한다.”
- 22:08 혈관을 찾고 링겔을 넣고 있음. 피부를 절개하여 직접 혈관과 기도를 넓히는 치료를 계속 중
(피로움 호소, 아직 의식있음) 소변 제거치료 병행
- 22:33 호흡이 곤란하므로 기도 확장 수술(1차 수술보다 순조로워 보임)
- 22:37 수술 치료 끝
- 22:48 소변 잘 나오는 약 투입
- 23:03 다소 호전됨(이것이 전적으로 좋아진 것은 아님)
- 23:18 김세진 열사 아버님과 대화
김열사 아버지; 나다. 세진이 아버지다. 우리는 이긴다.
래전; 나는 누구보다도 강해요.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요, 심장병 환자예요.
잘 좀 보살펴 주세요.

- 23:30 “학우들이여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은 죽어서는 안 돼”
- 23:35 진통제를 원하나 불가능함
- 23:38 의식 분명함. 전화벨 소리에 “예, 총학입니다.”라고 웃을 정도.
“잠을 자고 싶다”,
“왼쪽 팔이 아프다”고 호소

■ 1988년 6월 4일

- 00:20 “먼저 간 동지들이 도와주고 있다. 우리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가 아프시잖아. 그렇지. 물줘. 왼쪽 귀가 안들려...”
- 01:10 목이 따갑다고 말함. 입술이 많이 부었음. 산소 공급 중. 사람은 계속 알아봄.
- 01:34 호흡곤란
래전; 숨쉬기가 힘들다. 답답하다.
- 01:49 호흡곤란, 몸을 뒤틀음, 약 투여. 계속 물을 달라고 함.
- 02:15 의사들여감
래전; “숨이 막힌다. 의사를 불러달라”, “목이 안 움직인다.”
- 02:37 래전; “가래가 엉켜, 엉켜”
- 02:43 주위에서 말을 시켜도 전연 말을 안함
- 02:47 래전; “가재에 물을 좀 적서줘”
- 02:51 기도가 열린다며 상체를 일으킴
- 03:07 손이 차가와짐
래전; “아무 이야기나 해줘.” 발목에서 피 뿜음.
- 03:13 래전; “물을 조금씩 입에 적서 줘.”

03:15 주위에서 말을 하니까, 래전 ; "그만 하자. 말하지마"

03:40 잠이 듬

04:44 가래 제거 호스 교환

04:50 래전 ; "노래를 들어달라. 주물러달라."

04:55 노래를 들어주니까,
래전 ; "노래 싫다. 꺼라." 호흡 곤란 호소
의사 ; "숨을 크게 천천히 쉬어라."

5:00 상황 변화 없다가 상태는 자주 경련을 일으켰다. "이겨야 돼" 말
은 잘 못하고 묻는 말에 대답 안했다.

05:45 래전 ; "이땅의 한반도를 사랑했다." "싸워라. 싸워라", "민족민
주 전선 건설 투쟁 만세!"
친구들만 두 번 찾음(발음 불분명) 마지막으로 이땅에서 애국하
련다.

06:30 의식불명, 호흡거침, 외부통제중, 형만 들어가고 있음. 하고 싶은
말 없다고 고개짓. 금일 물종류는 조금씩 먹어도 됨

06:45 래전 ; "물 좀 줘"

06:50 보리차를 거어즈에 적서 물 몇 방울씩 투입

07:03 물 그만 달라고 고개짓. 자주 경련을 일으킴

07:10 래전 ; "물 줘"

07:15 X레이 촬영, 발에 주사 놓음

07:20 힘내라고 하니까 계속 고개를 끄덕거림

07:25 물, 가래 등의 말을 함. 의식은 거의 회복되었으나 상태는 조금
나빠짐

07:35 대체로 의식은 명확한 편이나 어렵지만 의사표현을 확실히 하고
있다. 용기를 내라고 말하자 고개를 끄덕여 대답. 계속 물을 2~3
방울씩 수시로 받아먹고 있음

07:42 물 먹고 가래 빼냄

07:48 래전 ; "작은 형 왔어" "물 줘"

07:56 숨을 쉬며 기지개를 펴. 머리를 높여달라고 요구

08:07 래전 ; "여기가 어디예요" (발음 불분명)

08:11 소변 갈아줌

11:10 기도 절개 수술

11:22 수술 끝

12:38 어머니님 병실 입실하심
어머니님 ; "장한 내 아들 래전아! 앞으로 일어나 엄마와 같이 싸우
자!", "엄마는 네 뒤를 이어 싸우마.엄마가 곁에 있다."
형 님 ; "빨리 회복해서 끝까지 싸우자"
어머니님 ; "장한 내 아들, 래전아!" "아무 걱정 말고 빨리 회복해"

13:45 왼팔에서 출혈이 심하여(피가 침대 밑으로 떨어질 정도), 의사에
게 말하여 조치, 계속 담당 의사들이 지켜보고 있음

14:05 눈의 치료를 위해 안과에서 진찰, 현재 안과에서 치료 중.
의사말에 의하면 눈에는 이상이 없고 화상에 의해 살이 엉겨 붙
었음

14:30 안과 치료 거의 마침
눈동자는 손상이 없으나 눈꺼풀이 화상으로 눈을 뜰 수 없는 상
태임
계속 산소호흡기로 기도에 직접 연결하여 호흡하고 있으며 의식
불명

- 15:05 산소호흡기로 호흡 유지. 호흡기를 잠시 떼고 기도 내의 이물질 제거
- 19:10 혈액 검사를 위한 혈액 채취,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을 정도로 외관상태가 나쁨. 기도에 연결된 호흡기로 계속 호흡 중이나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임. 호흡에 이상이 생겨 사용하던 자동 산소호흡기를 제거하고 즉시 수동 산소 호흡기로 대처하고 인공 호흡으로 치료 중
- 22:16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고비를 넘김. 현재 숨은 쉬고 있음

■ 1988년 6월 6일

- 03:30 강심제를 맞았으나 다시 심장 맥박이 약해져 병원측 전기 쇼크기가 올라감
- 04:00 맥박은 뛰고 있으나 호흡 약함. 의식 불명 상태 계속
- 09:40 상태 일시 호전. 악화 계속됨
- 12:23 운명

유서·1

어머님, 아버님께

천하의 몸쓸 불효자 막내가 드립니다.

이제 두 분의 곁을 떠나려 함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를 길러주신 두 분, 피와 살을 나누어 저를 애지중지 길러주신 두 분. 두 분께 분명 저는 몸쓸 불효자입니다.

그러나 어머님, 아버님. 저는 두 분의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니면 더 많은 어머님, 아버님들의 가슴을 에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불을 지르거나 몸을 던지면서 죽어갔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더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의, 사랑스러운 두 분의 아들의 목숨을 민주의 성단에 바쳐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엔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이, 8년 전 광주에서 우리의 형제, 친지들을 찢어 죽였던 칼날을 가슴에 품고 또다시 피바람을 불러일으키려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뿐인 사랑하는 조국 한반도는 분단의 원흉 미국에 의해 두들겨 맞고 칼부림당해 명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과 같은 이 땅의 부모들은, 두 분의 아들 같은 이 땅의 아들딸들은 이러한 폭정의 발톱에, 살인마들의 만행에 피를 빨리며 아위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어간 사람들은 어두운 세대, 세상을 잘못 만난 죄로, 아니 세상을 바로잡으려 온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님, 아버님.

안타깝게도 먼저 간 친구들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아까운 목숨만을 던진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 사람들은 진정 어머님, 아버님 같은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 래권이, 작은 엄마 같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두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데도,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심장병에 시달리시면서도 자식들을 위해 일하시는 어머님.
 아버님, 다리가 썩어 들어가도, 환갑이 넘어서도 일하시는 아버님.
 저는 두 분 곁으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해로서 대학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두 분 모시면서 고향에서 올바른 뜻을 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독히도 더러운 세상은 그 뜻마저도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습니다. 왜지요?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 안속만 차립니다.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고 청년학생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다음의 세대에 우리들의 세대와 같은 비극이 닥쳐오리란 생각들을 꿈에도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 시대의 군부독재는 우리의 손으로 깨부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미국놈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어머님, 강하게 사세요. 비록 자식은 떠나지만, 제가 원했던 세상을 보기까진 절대 눈감지 마세요. 아버님, 엄하셨습니다 다정했던 아버님, 건강하세요. 썩어 들어가는 다리도 고치셔야죠. 절대로, 절대로 저의 죽음을 비판하지 마세요.
 지금은 슬프시겠지만 제가 원하는 그날이 오면, 두 분 부모님. 아니, 그날이 오기까지 힘드시더라도 눈감지 마세요. 어떻게든 살아서 아들과 함께 싸우는 이 땅의 어머님, 아버님이 되세요.
 절대로 목숨을 버리시면 안됩니다.
 어머님, 아버님, 모질게 먹은 마음이라 눈물조차 흐르지 않아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히.

6월 2일 불효자 막내 드림

유서·2 어두운 시대에 태어나 참 인간이고자 했던
 작은 사람의 아들이 이땅의 모든 사람에게 드립니다.

-학살원흉 노태우는 즉각 처단되어야 합니다.
 8년전 이 땅을 피비린내로 진동하게 했던 학살의 원흉이 대통령의 권좌에 앉아 있습니다. 엄청난 부정과 사기극을 연출하여 대통령의 권좌에 오른 노태우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구로 학살이었고 이제 와서는 그 피묻은 손으로 광주항쟁의 진상 운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인자가 대통령의 권좌에 눌러 앉아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의 어디에 있으며 자신과 학살의 주범들은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내야 함에도 그 자들의 입으로 학살의 진상운운 하는 경우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여러분! 노태우의 광주항쟁 진상규명은 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다툼의 무기로 이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보수야당(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에 의한 제5공화국 비리 폭로나 광주항쟁의 진상 규명 역시 올림픽 이후에 재신임을 묻겠다는 노태우의 떡고물을 주워 삼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음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국정 조사권은 환상에 지나지 않으며 또다시 민중의 투쟁을 권력에 눈이 어두운 보수야당에게 팔아넘기는 작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학살원흉의 심판은, 아니 처단은 이 땅 4천만 민중의 투쟁에 의해 설치되는 민중재판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만 가능한 것이며 그때에만 광주의 원혼들은 구천을 맴돌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통일논의는 자유로이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향간에서 공동올림픽을 쟁취하자라는 것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국통일의 운동은 44년 숙원을, 한많은 거래의 염원을 풀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청년학생만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일부 정치권이나 정객들의 권리를 위해 이용되어서는 더욱더 안됩니다. 통일논의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 속에 범민중적으로 공유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공동올림픽의 환상은 깨어져야만 합니다.

조국통일의 논의가 활성화되기까지 올림픽은 거대한 매개로서 위치지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매개로 민족화해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은 일면타당성을 지닙니다. 국제 프롤레타리아주의의 무드가 평화의 조류로 흐르고 있고, 반전, 반핵 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적 흐름에만 매몰되어 한국에 있어서의 올림픽 역시 그 속에서만 파악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88올림픽은 한반도 6천만 민중에게 있어서 철저한 탄압과 착취의 계기로 작용한다는 사실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혁명가들이(?)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는 반민중적 올림픽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반민중적 올림픽 반대 투쟁의 기치를 치켜들고 동시에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획책하는 군사파쇼와 미제의 음모에 철퇴를 가해야 합니다. 올림픽은 민중적으로, 분단 올림픽 결사반대. 이것이 올림픽을 바라보는 올바른 투쟁인 것입니다.

-모든 양심수는 즉각 석방되어야 합니다.

저는 먼저 간 조성만 동지의 외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군사파쇼가 집권한 이후 내란음모죄,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모든 악법이 들어서고 이런 것을 수행하는 폭압기구에 의해 구속되고 철창 속에서 신음하는 양심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차디찬 골방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진정한 민중민주를 앞당기고자 노력했던, 진정 이 땅 6천만 민중의 아들, 딸이었습니다.

또한 국민화합 떠들어대는 노태우의 큰 목소리 밑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양심수는 무조건 석방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철 창 속에서 신음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분열의 씨앗은 제거하고 통일, 단결의 대오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은연중 심어진 제국주의자와 군사파쇼의 분열 논리는 모든 운동권과 민중들의 분열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분열되었을 때 좋아하는 것은 이 땅을 지배하는 자들뿐 일 것입니다. 사소한 감정이나 작은 논리의, 사상의 차이에 매몰되지 말고 통일, 단결을 실제화시켜 내기 위한 작업에 즉각적

으로 착수하십시오.

-이제 떠나려함에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준열이, 정주의 얼굴이 보입니다.

동지 여러분!

이 땅 4천만 민중여러분!

어두운 시대를 열정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한 인간이 여러분의 곁을 떠납니다.

87년 6월 투쟁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개량의 환상, 안일과 비겁을 깨뜨리고 투쟁의 대오를 굳게 하십시오. 아직은 할 일이 많은 때 먼저 가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죽어간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의 투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민중항쟁 8년 6월 2일

송실대학교 인문대 학생회장 박래전 드림

송실의 인문 학우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어 주시고 제게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야만 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하고자 했던 사업의 모든 부분을 부학생회장인 윤은경양 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저의 숙원 사업인 알기 인문의 명예를 되찾는 것, 혁명의 대오에 선두를 달리는 인문대 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보필해 주십시오. 거듭 죄송합니다.

이 땅에 민주주의가 오는 날 저는 환히 웃으며 돌아올 것입니다. 김창섭 선배의 곁에 놓고 싶습니다. 내 사랑하는 고향 송실의 동산, 선배의 옆에서 여러분의 투쟁을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한반도의 백만학도에게

수많은 선배동지들이 우리의 곁을 떠나갔다. 투신으로, 분신으로, 고문에, 살인 최루탄에!

아아! 학우여!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쓰러져야 하는가? 자유의 나무는 피의 양분을 먹고 자란다지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하는가? 학우여! 우리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하나의 죽음이 죽음으로 서의 가치조차 가지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죽음을 죽음으로만 보아 넘기는 것이 진정 민주쟁취, 민족해방, 조국통일의 선봉에 선 이 땅 청년학도의 모습이란 말인가? 청년학도야말로 불의 앞에 분노하고 정의 앞에 의연한 이 땅의 최후의 양심이다.

그러나 학우여!

오늘 우리는 비겁과 안일과 무감각의 늪에 빠져있다. 탐욕과 이기주의에 눈이 어두워져 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노동의 현장에서, 탄광에서, 농촌에서 군사파쇼의 총칼에 무참히 쓰러져 갈 때도, 청년학도의 발군을 촉구하며 온몸에 불을 붙였을 때도 회회낙낙하며 눈앞의 쾌락을 추구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 그것이 이 땅 청년학도의 오늘의 모습이다. 진정 자주, 민주, 통일은 몇몇 소수의 염원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사르며,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 바쳐가며 투쟁하던 열사들의 모습이, 학살원흉 처단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인가? 들리지 않는가. 광주 명령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는가. 세진이, 재호, 윤범, 성만, 덕수의 합성이. 학우여! 아직도 학살의 원흉은 권좌에 앉아 있고 그 피묻은 손을 휘두르며 위대한 노가리의 시대를 떠들어 대고 있다. 아직도 학살의 원격 조종자미국은 핵무기와 수입개방의 칼날을 들이대고 이 땅을 노린내 나는 양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88올림픽이라는 화려한 전광판 밑에는 군화발에 짓눌려 신음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있다. 학우여!

이제 나는 이 세계를 버리려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는 안되기에. 나의 죽음이 마지막 죽음 이길 바란다. 나의 투쟁이 이 땅의백만 학도에게 불을 당기는 투쟁이 되길 바란다. 백만 학도여! 내 사랑하는 한반도의 아들딸들이여!

일어나라! 내부의 갈등과 반목과 질서의 허울을 벗어버리고 진정 민주주의 시대, 민중의 나라, 통일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라!

백만 학도 일치 단결 군사파쇼 타도하자. 잊지 말자. 광주를! 처단하자! 학살원흉

우리의 투쟁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순수함 그 자체여야 한다.

모든 정파에게 호소한다. 자신의 권위와 아집을 버리고 실제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작업에 즉각 착수하라! 피눈물로,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일어나라! 백만 학도여! 나의 죽음을, 선배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라. 나의 죽음이 마지막 죽음이길 바란다. 6.10 총궐기로 군사파쇼타도의 불길을 높이 올리자! 물러서지 말자! 물러서지 말자! 우리는 이긴다. 학우여! 학우여!

광주민중 항쟁 8년 6월 2일
송실대학교 제20대 인문대 학생회장 박래전

당신을 기억하는 송실의 후배들은 당신을 잊고 싶어도 아직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온몸으로 부딪히며 꿈꾸던 세상, 사람답게 살고 싶던 세상은 아직도 요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너희들의 힘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이제 투쟁은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꿈꾸는 이들이 조금씩 밀고 가며 시나브로 바꿔놓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꿈을 꾸는 한 당신은 우리 가슴 속에 늘 살아 있습니다. 송실의 열사여 고히 잠드소서...

제2부
반도의 노래

패랭이의 노래
당신의 푸른 꽃
흙은 말한다
민주의 님이여! 부활하라!

래전이 형 분신후 88년 7월 경에 발간했던 반도의 노래를
그후 20년이 지난 즈음에 다시 한번 전문을 수록하였습니다.

패랭이의 노래

패랭이의 노래

밤이 모질어도
꽃을 피워야만 한다
여린 숨결 한 조각
가쁜 신음까지도
아직 동트지 않은 새벽에
꽃으로 피워야만 한다
황토밭 머리 한구석에
미처 눈감지 못한 녀들의
서러운 부활을 위해
꽃이 되어야만 한다
배정 개의 정기와
밤이슬만으로 자라나
이 역겨운 새벽에
꽃으로 피워야 한다
때꿀산 뒤에 숨은 햇살
마음껏 끌어올리는
온실의 카네이션보다 고운
꽃을 피워야만 한다

(1986·여름)

진달래

-수많은 4월을 생각하며

어둠이 미소 짓는 상여집 그늘
갓 핀 빛등에 기대어
서러운 두견이 울음을 한아름 끌어안고
쓰러질 듯
숨죽여 흐느끼는 이

치켜 올린 하늘에
노을 젖어 내려앉은 음산한 구름
까뒤풀은 두 눈으로 하늘을 움키며
진달래, 수많은 진달래가 진다고
몸 떨어 부르짖던 그이

움켜쥔 하늘, 하늘마다에
모진 총성이 울리고
메아리친 산마다, 거리마다에
피웃음처럼 피어나는 진달래

땃살스러이 나부끼는 소복은
분홍빛으로 물들고
파헤친 빛등 위로
피땀혀 통곡하는 소리
가슴 찢어 부르짖는 소리
모진 울분에 잎새 떨어 흩날리던
진달래 꽃잎들이 무수히 지는 소리

(1986.4)

기차

-비둘기호를 보면서

너는 늘 되돌아오곤 했다
덜컹덜컹거리는 쇿소리를 끌면서
철책 너머로 헐떡이며 구르다
어느 곳에선가 되돌아오곤 했다

네게 붙여진 이름이 비둘기였건만
너는 평화의 중립지대라 불리는 그 곳에서 끝내 지쳐 되돌아오곤 했다
야위어 숨 가쁜 이들의, 또는 쓰러져 잠든 이들의 슬픈 염원을 싣고 달리던
너는
너로서 넘지 못하는 그 곳에서
코 뜰린 송아지처럼 비실비실
돌아와야 했다

달리고 싶었고, 달려가서
압록수 두만강 잔물결 어루고
매서운 만주 바람도 마주보고 싶었지만
넌, 넌
우리 발목에 묶인 쇿사슬 소리

그 무게에 끌려
가야만 할 길을 가지 못하고
되돌아 와야 했지만

오늘
너와 같이 우리도 달린다

진달래 동산에도, 무궁화 그늘에도
멀지 않아 떠오를 여명을 위해
가쁜 숨 헐떡이며 찬 새벽 공기 속을 달린다
지쳐 되돌아오던 곳을 넘어
소리치며 달려 나갈 그 날을 믿기에
너,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오늘도 달려야 한다

(1987)

시인에게

-모독 · 1

아직도 시만 쓰고 앉아 있어야 하는가?
아직도 헛소리나 지껄이는 우리이어야 하는가?
뜨거운 가슴 감추어 두고
핏발 선 눈빛도 가리워 두고
종잇장이나 메우면서 이 세월을 보내야 하는가?

풀빛은

4월에서 5월로 푸르러만 가는데
곰팡내 풍기는 시만 쓰고 앉아 있을 것인가?

시는 시이니 시를 떠나서 어떤 세계가 존재하리오만
세계 속에 시가 있는 것이냐?
시 속에 세계가 있는 것이냐?

아니다

모두가 부질없는 장난이다
할일없는 놈팽이들의 지껄임이다

두 손에 4월을 움켜쥐고
5월의 칼에 맞은 혼들이 부르는데
그 아우성이 살아나는데
시멘트 바닥을 적시던 빗방울들이 울부짖는데
넌 아직도 시만 쓰고 앉아 있을 것이냐?

버터 덩어리들이 핵폭탄이 되어
버섯구름 아래 나라가 있고
쪽바리들 열심히 끄는 쪼오리에
깡마른 형제들이 있는데
개들은 쉴 새 없이 짖어대는데
넌 아직도 시만 쓰고 있어야 할 것이냐?

(1986 · 봄)

폐인에게

-모독 · 2

넌 아직도
포대기에 싸인 어린아이라야 하는가?
네 곁에 피 흘린 형제가 있고
우리 곁에 널 부르는 손짓들이 있는데
넌 아직
에미젖이 그리운 어린아이라야 하는가?

시간이 흐를수록
식사술 끄는 소리는 무거워하고
철창 거는 소리 둔탁해지는데
날도 서지 않은 낮을 들고 휘두르는
넌 아직도 어린애인 것인가?

교활해져라!
안속은 장사아치 뺨을 치고
권모술수, 아침, 아양……
온갖 떨거지들 판을 치고
군화발 밑에 형제가 있는데

몸을 살라가며 자유를 외치는 그들이 있는데
넌 아직도 우물 안 개구리
에미 치마폭이 그리운
어린아이라야 하는 것이냐!

(1986 · 여름)

그대에게

-모독 · 3

그대여, 말하라!
우리들의 분노를
그대여, 말하라!
나의 비겁을

동지들이 하나 둘
거친 손아귀에 끌려갈 때
동지여, 아는가?
우리들의 썩어빠진 울분과
나의 음울한 침묵을

동지여!
우리는 왜 비겁해야 하는가?
몸부림치는 현장에서
이글거리던 불꽃은
왜 소리 없이 사그라져야 하는가?
우리는
또 나는 왜 비겁해야 하는가?

동지여!
이제 우린 안다
골방 속의 활화산은
막걸리 한 잔의 술자리에서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푸른 하늘 밑에서 작열하는

한 알의 사과탄 앞에 소리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의 가슴 속 깊은 곳엔
아직 귀족의 영화가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아직 비리의 연약함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대여!
진정 우리가 하나 이려면
책상머리에서 만나서는 하나일 수 없다는 것을 알자
도시의 빌딩 그늘 아래에서
오염된 하늘 밑에서
진정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우리는
진정 우리는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강 · 1

멀리
강이 흐른다

흐르다
흐르다
지쳐 썩어버린 강

어두운 바윗골
정기 어린 새암물

실개천을 흘러
강에 이른다

수초 사이를 헤집고
머언 하류를 흐른다

노을저 드는
머언 수평선

푸르름을 배운 아픔으로
멧은 심장을 뒤로 하고

바라보이는 강이
시린 눈빛으로 바라보이는 강이
푸르기만 하다
푸르기만 하다

강 · 2

별빛을 쫓아오고 솟아오르는 소음
저녁녘의 빈 들 저 아래서
강은 또 살을 부딪힌다
핏빛 비늘로 소스라쳐 누운 물결은
솟아오르지 않는 파도를 삭히며 잠들고
담 너머 흰 줄기
슬픔의 문 안으로 기어든다

문득
숲 뒤로 돌아서는 달 아래
강가의 상해 버린 수초
물결 위로 어우러진
찌는 별빛
별빛

강 · 3

울고 있다
저녁의 빈 들 아래서
핏빛 비늘로 누운 강물은
어그러진 꿈을
하나 둘 세며 흘러온 세월을
황혼처럼 울고 있다
설움으로 흘러온 머언 상류에서
살을 부딪히던 수많은 바람
겨울날의 시린 별빛이며
으르렁거리던 여름날을

이제 심연에서 솟아오르는
오직 하나
한 줄기 햇빛으로
모진 울음을 토하리라

강물 위로 떠오를
조각난 달빛과 찢든 별빛을 뒤로 하고
선혈처럼 울부짖으며
해일처럼 용솟음치며

슬픔의 문 안에서
갈숲을 돌아 솟을
붉게 물든 자유의 태양을 맞으리라

강 · 4

강가에 나앉은 한밤중
물소리가 서럽도록 정겹다

어스름 침침한 하늘
샛별마저 사그라져 가면

아침이, 아침이 온다고
부산대는 사람들

강은 아직도 썩어 있고
태양은 먹구름 속에 질질 찌는데

저만치
시린 새벽이 기다리고 섰다

폐인의 오후

돌아서 흘리는 나의 눈물은
눈물이 아니다
피멍든 몸뚱아리에
그래도 살아남은 심장은
폐인이기에 느끼는 것
아직은 식지 않은 나의 피
우리들의 피

오늘도 숫돌에 낫을 가는 오후
잘려나간 풀들의 서러운 웃음
아아!
폐인이여
쓰러지지 않고 우뚝 선
아직은 식지 않은 폐인의 오후여!

비

초라한 사내가 길을 간다
기다란 전신주 그림자를 밟으며
빗물에 비쳐드는 수 없는 빗줄기 속으로
비틀린 입술을 파랗게 질린 얼굴에 떠올리며
절뚝이는 웃음을 지으며
겨울비 속을 간다

이 비 내린 후면
살을 에는 추위가 시작되었지
친구는 무얼 할까
차디 찬 땅속에서 모진 비를 피하며
비틀거리는 웃음을 지을까
젖눌린 붉은 흙 밑에서
내 친구는 아직도 자유를 비웃으며
넋 나간 두 눈을 부릅뜨고 있을까

지금은 알지 못하는 이가 몸을 누이고 있을
낡은 추녀 밑을 돌아
꾸부정한 사내가 비틀비틀
끝없는 도시의 빗속을 걸어간다

누렇게 뜬 얼굴에
절뚝이는 웃음을 떠올리며

바람일 수는 없다

바람일 수는 없다
한번 불어 흙먼지 일으키고
사라져가는 바람일 수는 없다

마른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일 수는 없다
땅 적시고 마르는
빗방울일 수는 없다

바람이려거든
한번 불어 복새풍을 쓸어가는
그런 바람이거라
그런 바람이거라

물이려거든
꿍임없이 솟아나는 샘이거라
목마른 자, 메마른 땅
쉬임 없이 적시는 그런 샘이거라

동화(冬花)

당신들이 제게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는 까닭에
저는 당신들의 코끝이나 간지르는
가을꽃일 수 없습니다.

제게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아는 까닭에
저는 풍성한 가을에도 뜨거운 여름에도
따사로운 봄에도 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못하는 건
그래도 꽃을 피워야 하는 건
내 발의 사슬 때문이지요

겨울꽃이 되어버린 지금
피기도 전에 시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향기를 위해
내 이름은 동화(冬花)라 합니다.

세찬 눈보라만이 몰아치는
당신들의 나라에서
그래도 몸을 비틀며 피어나는 꽃입니다

당신의 푸른 꽃

불 꺼진 창

1

밤마다 너의 창문에
불이 켜있기를 바랬다

흐느적거리는 발걸음으로
어두운 골목길을 돌아오면서
불 꺼진 창을 본다
길들여진 망아지처럼

너는 지금
줄리운 눈을 부비며
야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썩썩한 소주 향에 내가 휘청거릴 때도
암모니아 표백제 냄새를 맡으며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박봉을 위해
이 밤을 새우고 있을 것이다

학교는 다녀 무엇하나
소설은 써서 무엇하나

박봉을 위해 밤샘하는 건 아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싸우지 않고는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촌놈의 불덩어리 양심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

야근을 하고

줄린 눈 부비고 임금 인상 투쟁을 해야 한다

2

너의 창문엔 불이 꺼지고
언제나처럼 창문을 본다
거짓된 삶이 싫다고
기생충 같은 삶이 싫다고
불을 꺼버린 너의 창문을

(1986· 봄)

아버지의 고독

1

죽기 전에 내 땅에서 배불리 먹을 쌀이나 있었으면
밤낮없이 논바닥 밭이랑을 기고
여름이면 참외 토마토
잠나면 동장군도 저 보며
유리알 길 미끄러운 겨울날
뺑튀기 리어카를 끌었던
아버지

2

“이젠 땅도 있고 집도 있어요
편히 쉬면서 사세요.”

“아니야
나는 못 배웠어도 느들은 배워야 해
배워야 농사를 짓지 않지. 지겨워.”

또다시 삼을 싣고
경운기를 몰았지
자식 놈들 둘씩이나 대학 보내고
함박만큼 벌어진 입, 다물지 못하시며
그래도 다칠 세라

“절대루 데모하면 안 돼
데모는 빨갱이들이나 하는 거여.”

3

“래군이구 구속됐데
어제 저녁 테레비에도 나온 걸.”

창문에서 뛰어

(미완성)

손 씨

잠자리에서 듣는 소리가 있다
삐걱거리는 발판
한 발이라도 헛디디면
곧 생활이 무너진다
가는 통나무 몇 개, 철사에 의지하고
넘어지면 안 된다
내년이면 막내가 중학교 가고
큰 놈이 대학엘 간다
그놈들만은 이 발판을 타면 안 되지
넥타이 매고 폭 파묻힌 회전의자에
빙빙 돌아가는 그런 꿈을 꾸며
오늘도 손 씨는 발판을 탄다
발판보다 더 삐걱거리는 관절의 마찰음을 내며
수십 년 타 온 발판이
자식을 생각하면 높아도 낮게 보인다

질통

모래알이 구르고
자갈이 밝힌다
2층으로 올라가는 발판을 타면서
나를 부정하려 한다

‘나는 대학생이 아니다
지금 여기서 나는 노가다 판의 질통꾼이다.’

그러나 옥상 꼭대기에 켜켜이 다다르면
이것이 착각임을 곧 깨닫는다
수십 년을 발판타기에 매달린
손 씨의 삐걱거리는 발걸음이 저만치 아래에 있다
“젊은이는 달라.”
그리고 곧 부정한다
“대학생이 참 잘해.”
대학생-지금의 나는 대학생이 아니다
부정을 해도 곧 그것은
자기 긍정에 지나지 않는다
넌 이방인이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난 이방인일 뿐이다
같은 땅에서 살아도
같은 발판을 타도 신분이 다른
이방인일 뿐이다

당신의 푸른 옷

누가 당신으로 하여
그 옷을 입게 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그 옷을 입혔습니까
유리문 사이로 닿을 듯 멀기만 한
당신의 푸른 옷
무거운 짐 어깨에 지고
당당히 나아가는 당신에게
누가 그 옷을 입혔나йка
잘못한 것이 없으니
무슨 이유로 재판을 받겠냐며
손흔들어 답하던
당신의 푸른 옷
우리 모두에게 입혀진
우리들의 푸른 옷

(1986 · 가을)

모순 · 1

아시안 게임 반대를 외치다
구류 15일을 살고 나온 날
그래도 금메달이 몇 개가
신문지 조각을 기웃거리 본다

금메달은 쏟아지고
관광 수입 입장료 수입
배불뚝이 아가리 함박만 해지더라
체력은 곧 국력이니
종합 2위하면 경제력도 2위
아시아는 서울로
온갖 오입쟁이들도 서울로

문간방 순이네
절뚝이며 시장가기 힘겨워
아시안 게임은 하면 했지 리어카꾼은 왜 없앤담
홍행 만점 하면 우리 배 주리고
오이 밭 하는 돌이네
한 대목 보려했더니 아시안 게임에 외 값이 폭락
칠팔월 땀방울 떨어지듯 한다고
한숨짓는 하루

그래도 금메달이 몇 개가
오이 값은 떨어저도

다리는 아파도
그저 금메달이 최고다

어머니 말씀

어떡할려고 그러니 이노무 새끼들아
난 어떡하라고 두 형제가 다 유치장에 있어
나와라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
어떡하란 말이나 애들아

노랑진 유치장에 면회 오신 어머니님
나이 오십에
칠십 나이 겹늬은
할머니 주름 가득한
어머니님

밤이 새도록 불을 켜 두는 이유

밤이 새도록 나는
내 방의 불을 꺼버릴 수 없습니다
그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겨울에서 봄으로 가던 날
그는 이 방을 떠났습니다
주렁주렁 매달린 연륜의 끈을 자르고
열두 시간 노동에 시달려도
십만 원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노동자가 되어
조그만 전세방을 떠났습니다

폐를 갉아먹는 실밥 부스러기나
뼈를 삭히는 독향이 좋아서는 아닙니다
조악한 노동 조건과
저임금이 좋아서는 더욱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싸우기 위하여 간다고만 했습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나는 내 방의 불을 끌 수 없습니다
그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줄리운 눈 부비며 신새벽에
또는 어두운 밤에 비틀거리면서라도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기까지 내 방의 불을 꺼버릴 수 없습니다
창문의 불빛을 보고 날아드는 불나비처럼
불나비를 부르며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1986·가을)

다시 그대들이여

멍든 가슴을 풀라
피땀한 가슴을 풀라
막혔던 가슴을 풀라
짓눌린 몸뚱이를 풀라

1960년 4월

밀물처럼 밀려들던 그대들이여
손에 손에 움켜쥔 돌맹이
몸뚱아리 하나만으로 바리케이트 치고
소리 내며 날던 총알 헤치고
이화장으로
경무대로 밀려들던 그대들이여

제국의 푸른 옷들이
총칼로 일어서고
갓은 아양으로 득세할 때
어디로 갔느냐?
그 아우성, 절규는
애타게 민주를 부르던 그대들이여
거센 몸부림 어디에 버려두고
정의 사회다
복지 사회다

장단이나 맞추어 대는가?
새 햇살이 산동성이 타고 다가오는
동으로 동으로

(미완성)

친구에게

-아키노에 네게 주노라

친구여
우린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너와 내가
한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민주 - 내 아들의 오랜 수면이
종식되는 그날이라
단말마의 총성으로 돌아누운
그대는
사라지지 않는 사랑의 화신이라

베그니노여
그대 비록 가위 놀려
신음하다 떠났을지라도
나는 이 땅을 버리지 않으리

나의 조국이
죽음으로 나를 맞을지라도
깨우고야 말리라
내 아들의 깊은 잠을

자유에게

-4월을 향해

우렁찬 함성을
등 뒤로 등 뒤로 하고
모진 설움에
날개를 찢기운 새여
날고 싶은
그러나 날지 못하는
아픈 자유여

눈이 시리도록
푸르른 새벽이면
땅바닥에 뒹구는
설운 자유의 시신

그늘에 숨어서
차가운 담장에 비스듬히 기대어
기다린
기다린
자유여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목 놓아 외쳐 부르는
푸른 자유여

달아! 네가 보고파서

1. 수인(囚人)

애타도록 너를 그렸다
회색 벽 위에
차디찬 마룻바닥에
날마다 울고있는 달아! 널 그렸다

양가슴을 찢른 비수가
서럽게 안타까워
따사로움을 잃은 네가 보고파서
격자 창살 틈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면
흑은 반원이라도 그리면
달아! 내 얼굴인 듯싶었다

잠든 육체 위에 내리고
늘어진 우리, 다독여 주던 네가 보고파서
달아! 달아! 너를 그렸다

2. 빗속에서

달아! 너마저 우느냐
고루 비추어야 하는데
따사롭지 못해도 우리 가는 길 밝게 비추어야 하는데

멍든 가슴이나마 서리 내린 지금을 밝혀야 하는데
 왜 울고 있는 것이냐
 쿨럭이며 야근 나가는 선이 어깨 위에도
 신새벽 서산에 걸린 너를 보고
 질통 지는 손 씨 등짝이며
 선머슴 돌이 꿈속에도 빛나야 하는데
 달아!
 너마저 구름 속에 우느냐

3. 달아! 우리 가슴 아픈 달아

오늘은 구름조차 널 가리고
 네 희미한 빛 속에
 비가 내린다

아무려면 어떠냐
 네가 떠오르지 않던 까만 밤에도
 우린 널 볼 수 있었으니까
 가슴에 비수를 품고
 우리와 같이 울고 있는 널
 언제나, 어디서나 볼 수 있었으니까

그날, 그날이 오기까지 어머니

평생을 여름지기의 아낙으로
 자식새끼 자랑으로 살아온 어머니
 뼈까지 마디 새겨진 한(恨)들이
 어둠에 가워눌려
 밤마다 가쁜 숨결로
 뜬잠 이루시는
 어머니

죽기 전에 자갈논 한 자리나마 가지고 싶다
 밤낮없이 새경을 모으고
 살 예이는 겨울 길
 뺨튀기 구루마를 끌던 아버지
 국민학교 6학년 어린 나이로
 구루마 쫓아다니던
 큰형님이 가여워
 밤마다 베갯잇을 적시던 어머니

양회 한 포대 얻자고
 이장한테 샅대 질하다가
 퍼렇게 멍든 아버지 얼굴 보고

여보
 우리도 한번 보란 듯이 삼시다
 울며 울며

자식새끼들 끌어안으시던
엄니

아버지 얼굴을 후려치던

그 얼굴, 털이 난 손들

엄니!

당신의 신음 위에서

가진 자들의 웃음꽃이 사라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피골로 키운 자식들이

얼어붙은 황토 위에

뜨거운 찢자국으로 남을 지라도

진달래의 뉘트로 산화할지라도

보아 주세요

결코 슬프지 않은

그러나 꼭 이겨야 할 싸움의 길에 선 당신의 자식들을

못된 자들의 눈가림과 짓눌림 속에서

당신의 피로 자라나

이 땅의 어둠과

더러운 강물 위에서

매서운 발톱 밑에서

놀아날 수 없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못난 자식 놈들을 지켜 주세요

역겹고 원망스러울지라도

눈 뜨고 보아 주세요

뒷산 후미진 그늘에 진달래 만발하고

저 건너 봉화산 꼭대기에 햇불이 오르는 날

당신의 가쁜 신음 그치고

검게 탄 아버지 얼굴에서 해묵은 피멍이 사라지는

그날

그날이 오기까지

엄니

흙은 말한다

농사꾼의 노래

비를 맞으며 가자
홀적삼 속 고쟁이 달라붙어도
아직 젖지 않은 흙의 속살을 밟으며
들 건너 가시나무 숲으로 가자

한 손에 삼을 잡고
한 손에 송아지 끌며 가자
맨발로 가자
손에 손 부여잡고
가시나무숲 헤치며
깨끗한 우리의 피 흘리며 가자

맨살이 살아서,
홀린 피가 살아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대낮으로 가자
가서 잠든 태양을 깨우고
가슴 속에 웅어리진 한(恨)덩이 마음껏 사르고
살라서 가시나무숲 불태우고
밭을 일구자
기름진 살이 일어나는 우리들의 밭을

(1986· 여름)

흙으로 돌아와서

뜻을 품어 떠났던 이
흙으로 돌아온다

흙에서 나서
흙으로 살다가
잠든 흙을 깨우기 위해
흙을 떠났던 이

흙을 떠나서는
흙을 깨울 수 없음에
흙먼지 날리는 길을 걸어
흙으로 돌아오는 사람아

네 꿈은 흙에 잠들어 있으니
깨우라!
잠든 흙을 깨우라!
네 기억의 몸짓으로

거친 땅, 깊게 내린 너의 뿌리에
반역의 열매를 맺으리니
깨우라!
잠든 흙을 깨우라!